

지 상 범 석

모든 것을 놓고 다 비워야

“물질·명예의 노예가 되어 무명서 헤매지 말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세워 공부하십시오”

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심이 없는 정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두를 하면 반드시 성불 하겠다”는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오염될대로 오염되면 산천도 오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보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흐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명예의 노예가 되어 늘 주아로 고통받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으면 안됩니다. 대자유인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한 경계에서는 생활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제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설해진 상대적인 언설이면서 승의는 경험적인 언설의 부정 즉 불가언설(不可言說)이다. 세존께서 무상정등각을 이룬 후에 스스로의 깨달음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것이나 무기(無記)에서 보인 침묵의 태도는, 더없는 최상승의 진리를 언어로서 나타낼 수 없음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1 양형진 승의제

큰 원력과 확고 부동한 신심이 정진을 좌우 '나 아니면 안된다' 사건 들면 남까지도 오염

구제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큰 발원입니다. 곧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다는 뜻이지요.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몸통이를 지탱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시간을 의미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마음은 몇억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수행해가는 도반의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몇마디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몇천년 몇억년을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승의란 공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 현대물리학 不可言說의 진리 일부 파악

제에 의거하여 중생을 위한 법을 설하시니(제9경) 이 이제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심오한 불법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없게 된다(제10경)고 하였다. 또한 중론(中論) 제18장 제9경에서는 “자기 스스로 알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면, 적정하며 회론이 적멸하고, 차별이 없으며 무분별하다. 이를 이룰하여 실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강화 합장

불교서적의 모든 것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구직광고 사찰운전기사·男 가족과 함께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042) 252-5422

안내문 8·15 제50주년 추념 호국선열·전몰장병 위령대제 8·15 제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오늘의 고요문화를 꽃피우다 희생하신 호국선열·전몰장병의 영혼을 추모키위하여 대한불교청정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호국선열·전몰장병 위령대제를 봉행코져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02-737-8881 F.02-737-0697 부산지사 T.051-634-5114 F.051-634-5188 광주지사 T.062-375-9986 F.062-371-7544 대구지사 T.053-427-8008 목포보급소 T.0631-281-2534 공주보급소 T.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평기와 영업을 밝히려는 기복을 전하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과 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빙풍 및 액자와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서울 지명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민(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길 17-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납입계좌 822-24-0171-3281(주인)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합장 대표 이규영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목재) 수습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흥B/D (울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